

조마조마... 도내 초중고 3차 등교

공현철 · 강교현 기자

3일 6만8,000여명 3차 등교, 1·2차 포함 82%
도교육청, 순차적 등교에 교육·방역활동 강화

3일 오전 8시15분께 전주 우림중학교. 어깨에 '생활 속 거리두기'라고 써진 띠를 두른 교사들이 올해 첫 등교를 하는 2학년 학생들을 반갑게 맞았다.

교문 앞 횡단보도에서는 경광봉을 든 교사가 안전을 책임졌다. 학생들은 학교 현관부터 이어지는 통행로에 1m 간격을 유지한 채 교사들의 안내에 따라 두 줄로 입실 했다.

각 교실에서는 담임교사가 인사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켜야 할 보건안전 수칙을 안내했다.

강전구 교사는 “오랜만에 등교하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다”면서 “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”고 말했다.

이날 도내 초·중·고 3·4학년 3만4,303명과 중학교 2학년 1만6,494명, 고등학교 1학년 1만7,383명 등 6만8,000여 명이 3차 등교에 나섰다.

앞서 1·2차에 등교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학생 11만2,000여 명까지 포함하면 18만여 명에 달한다. 도내 학생이 21만8,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82%의 학생이 등교를 한 셈이다.

전북도교육청은 순차적 등교가 이뤄지면서 교육·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.

학교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인



력 2,508명을 위촉하고 학교 현장에 투입했다.

지원 인력은 방과후학교 강사를 우선 위촉하되 퇴직 교원·학부모 등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. 위촉 기간은 2개월 안팎으로 하루 4~5시간을 지원한다. 이들은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·발열 체크·방역용품 관리·보건실 업무 등을 지원한다. 또 등·하교시 학생 간 일정거리 유지, 급식소 이용 시 질서 유지, 밀집 접촉 금지 등 '생활지도 지원'의 역할도 한다.

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△상시 소독 계획 △유증상자 발생 시 대책방안 마

련 여부 △의심환자 격리장소 준비 상황 △발열체크 준비 상황 및 마스크 비치 여부 △수업 시간 및 급식시간 운용 계획△등교 시 혼잡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.

도교육청 관계자는 “등교수업 이후 학교가 교육활동과 방역활동, 학부모 문의, 각종 행정업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”면서 “인력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방역활동과 생활지도, 학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